



## 문화·복지 포교로 불심 지핀다

### 강원 춘천·철원·홍천

**# 춘천** 강원도청 소재지이자 호반의 도시 춘천. 춘천은 전통적으로 기독교세가 강한 곳이다.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불교는 이렇다할 목소리조차 내지 못했을 정도로 불교 불모지였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다. 1980년대부터 꾸준히 성장해 온 춘천불교는 이제 어느 정도 제 색깔을 내며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삼운사 석왕사 불덕사가 있다.

1980년대 춘천불교를 주도했던 사람은 불덕사다. 1971년 불덕사를 창건한 조계종 비구니 원로인 각립스님은 80년대부터 포교에 뛰어들었으며, 제자이자 현 주지인 해욱 스님이 그 뒤를 이어 춘천불교문화원을 열어 각종 문화프로그램과 시행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불을 지켰다.

이어 1991년 강원불교대학으로 신도교육과 포교에 나선 석왕사가 초중고 법회와 복지활동 등을 병행하면서 90년대 춘천포교를 주도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 삼운사가 교육·포교·복지·신행 등 종합도량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춘천 불교를 리드하고 있다.

춘천 포교 1번지로 자리잡은 삼운사는 춘천노인종합복지관, 강원도노인화대에방센터, 춘천노인인력지원기관 등 3개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지역부

지에 나서는 한편, 어린이·학생·청년·합창단·가족 법회 등을 운영하고 24시간 사찰을 개방해 신행문화를 확산시켰다.

그리고 지난해 춘천금강불교대학을 개설해 신도교육에 나서면서 명실상부한 종합도량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입학경쟁이 치열할 정도로 인기가 높은 삼운사 유치원은 양질의 교육을 통해 새싹포교를 주도하고 있다.

석왕사의 활동도 여전히 활발하다. 강원도 최초의 불교대학인 석왕사 강원불교대학은 춘천불교 재가리더 대부분이 강원불교대학 출신일 정도로 춘천불교인재의 산실로 자리 잡았으며, 틈비유치원과 각종 복지 및 사회활동을 통해 불교 이미지를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불덕사는 산사음악회와 퇴계연꽃어린이집으로, 부흥사는 복지와 방송포교로, 보타사는 남골당으로 지역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지역 신행단체들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경찰청·시청 불자회와 거사립회인 불이회, 춘천불교청년회 등이 정기법회 등을 통해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사암연합회 활동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대불련과 고등학교불교회 활동이 회원 부족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춘천불교가 풀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춘천, 신행단체 잇따라 결성  
철원, 심원사 불자교육 앞장  
홍천, 사암련-신도회 화합 주도

**# 철원** 인구 5만명의 철원은 북한과 맞닿아 있는 최전방 지역이다. 당연히 군부대가 많을 수밖에 없다. 지역민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대작농이 상당수에 이른다. 이것 말고 뚜렷한 특징은 없다.

철원불교도 마찬가지다. 별다른 특징이 없다. 사찰 수는 15곳 정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다할 활동도 눈에 띄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심원사의 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군법당인 청원사가 심원사의 지원을 등에 업고 군 포교에 적극 나서면서 새 활로를 열고 있다. 여기에도 도피안사가 불사를 마치고 포교와 복지에 뛰어들 계획이어서 기대를 갖게 한다.

특히 철원불교의 중심인 심원사는 3년 전 불교양대학을 개설해 기복적 성향이 강한 지역복지 교육에 나서는 한편, 봄·여름 가을 세 차례에 걸쳐 각각 49일 동안 지장기도를 봉행하는 등 국내 최고의 지장도량 이미지를 갖춘 기도처로서 지역불교를 이끌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민들의 불교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사중 스님과 사찰 직원들이 지역민들과 배드민턴 경기 등을 하며 거리 좁히기에 나서는 등 적



춘천 포교 1번지 삼운사는 교육·복지·포교·신행 등을 통해 춘천불교를 이끌어가고 있다. 사진은 강원지역 최고의 시설과 경쟁력을 자랑하는 삼운사 유치원 원아들의 활동 모습.

극적인 불교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또한 어린이·청소년·어르신들을 위한 각종 시설을 건립해 본격적인 포교에 나설 계획이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2년 전 창립된 사암연합회가 이름뿐이라는 점이다. 현재로서는 사찰들의 뜻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있어 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철원불교가 한층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다.

**# 홍천** 홍천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다. 사찰 수는 40여 곳이며, 전통사찰인 수타사와 아마타 도량인 연화사가 가장 활발한 활동

을 보이고 있다.

홍천불교의 특징은 다른 지역과 달리 사암연합회가 독특한 형태로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30여 회원사찰들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지역현안을 논의하고 돌아가며 군부대법회도 열고 있다. 여기에 지역 신도회가 참여해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구조를 갖추고 화합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홍천불교는 통일시대가 열릴 경우 홍천이 한반도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이를 대비한 준비를 차분히 해가고 있다.

한명우 기자 mwihan@buddhapia.com

## 지역불교 이끄는 주역들

### 어린이·군·노인 전방위 포교

도후 스님 (철원 심원사 주지·불교방송 이사장)

철원불교의 리더. 도후 스님은 심원사를 철원의 대표 사찰로 확고히 자리매김 시킨 한편, 군 포교 등 활발한 포교활동을 통해 철원불교 모습을 바꾸어놓았다.



또한 불교교양대학을 개설해 정법신행을 뿌리내리는데 진력하면서, 경로잔치 등을 통해 지역민에게 친근한 불교 이미지를 심고 있다.

각종 불사를 통해 심원사 사격을 갖추어놓은 한편, 연천의 옛 심원사 터에 법당(원심원사)을 짓고 도로를 개설하는 등 복원불사에도 주력하고 있다. 후학들을 격려하고 후원을 하는 등 불교인재양성에 도적극적이다.

노인요양원과 어린이집 운영을 계획 중이다. 현재 불교방송 이사장과 조계종 중앙총회의원, 사단법인 불교문화산업기획단 이사장으로서 종단과 불교 언론 및 문화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 돌 직접 나르며 11년간 불사

도견 스님 (철원 도피안사 주지)

11년 전, 절 모퉁만 남아있던 도피안사 주지로 부임해 법당, 설법전, 종각, 금강문 등의 불사를 통해 사격을 갖추어놓았다. 돌을 나르는 등 직접 불사에 참여, 도피안사 곳곳에는 도견 스님의 땀이

묻어 있다.

앞으로도 석조지장보살, 천불전, 일주문, 전통차집 등을 건립해 도피안사를 명실상부한 기도도량이자 생활도량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다. 불사가 마무리되면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복지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사찰자립경영에 대한 소신이 확고하며, 개인전을 열었을 정도로 사견에도 일가견이 있다.

### 불교대학·유치원 운영

백운 스님 (춘천 석왕사 주지·태고종 강원교구총무원장)

백운 스님은 춘천불교의 역사로 통한다. 1972년 석왕사에 온 이래 33년간 활동하면서 춘천불교의 인지를 다진 일등공신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불교 불모지였던 춘천에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불교대학과 불교유치원을 열었다가 하면, 10년 전 템플스테이와 같은 '산사의 하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미래를 내다보는 포교로 춘천불교 발전에 공을 세웠다. 또 8년간 춘천사암연합회장을 맡아 지역 화합에도 기여했다.



25년째 춘천교도소 종교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춘천소년원 종교위원, 강원 경찰청 경승으로서 활발한 지역활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 태고종 교무부장을 맡고 있다.

### 지역불교 발전 핵심동력

법선 스님 (춘천 부흥사 주지)

법선 스님은 20여 년간 사암련 소임을 맡아 발로 뛰며 춘천불교 발전에 힘을 쏟았다. 지역 신행단체, 군경, 대학, 복지계 등 법선 스님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



사회활동을 통한 포교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소신으로 춘천교도소 교화위원, 춘천소년원 선도위원, 춘천경찰서 경승 등을 맡아 활동하고 있으며, 춘천사암련 사무총장, 태고종 강원교구 포교원장, 강원불교연합회 간사 등을 맡아 불교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춘천불교방송 운영위원이자, '마음의 창을 열고'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방송포교에도 주력하고 있다.

### 아미타불 성지 조성 헌신

화담 스님 (춘천 연화사 주지)

11년 동안 동양 최대의 아미타불과 대규모의 법당 불사로 연화사를 아마타 기도도량으로 일궈냈다. 또한 활발한 지역 포교 활동으로 춘천불교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각종 축하연때 지역민들에게 회관을 무료로 제공해주고, 독거노인과



불우 청소년 돕기에도 적극적이다. 신도들에게는 생활불교와 실천행을 강조한다.

화담 스님은 연화사를 아마타 부처님 성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아래 일주문 불사 등 마무리 불사를 추진하고 있다. 총화종 중앙총회의장으로서 종단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 복지관 3곳 운영 활동 왕성

월도 스님 (춘천 삼운사 주지·춘천노인종합복지관장)

춘천의 스님들로부터 '춘천불교의 보배'로 불리는 춘천불교의 인재, 열린 마인드와 추진력, 그리고 친화력을 고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양하고 활발한 포교활동으로 삼운사를 춘천포교 1번지로 자리매김 시켰다.



월도 스님은 '종교를 위한 삶보다는 삶을 위한 종교'가 돼야 한다는 신념아래 생활불교·실천불교를 강조한다. 춘천노인종합복지관 등 3개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지역복지에도 기여하고 있다. 춘천사암연합회 수석부회장, 강원도사암연합회 부회장, 강원 경찰청 경승, 춘천사회복지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천태종 총무국장과 성남 화성사 주지를 겸하고 있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 불교계 최초 산사음악회 열려

해욱 스님 (춘천 불덕사 주지)

월도 스님과 함께 춘천불교의 인재로 꼽히는 해

욱 스님, 비구니스님으로 포교에 대한 재능과 열정은 누구보다도 강하다. 실력과 온화함을 갖추고 있어 신도들과 지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



1986년 춘천불교문화원을 열고 10년간 활동하며 문화포교의 지평을 열었다. 1996년 불교계에서는 처음으로 산사음악회를 연 장본인이기도 하다. 강원도 최초로 어린이여름불교학교를 열기도 했다.

복지·포교·문화 등 각 분야의 젊은 스님들을 초빙해 젊은 세대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강연회를 열고 싶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 복지시설·불우이웃 지원

진철 스님 (춘천 보타사 주지)

진철 스님은 1986년 보타사 주지 소임을 맡아 불사를 시작, 사격을 갖추고 복지시설과 불우이웃,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등에 대한 지원활동을 통해 포교에 나서고 있다. 지금도 불우아동을 키우고 있을 정도로 아이사랑이 남다르다.



올 5월에는 남골당 '연지원'을 건립했으며, 중국개원사와 자매결연하고 교류에 나섰다.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에게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학비를 지원해 불자인재로 키우고 싶다는 발원을 하고 있다.

# 蓮

연<련>

- 50g

## 최고급 천연 연꽃 미백기능성 화장품 蓮

흙탕물에서 고운꽃을 피워내는 우수한 정화능력과 증진속에 대한 저항이 놀라운 연꽃에서 정제추출한 연꽃 추출물은 피부에 대한 보습효과가 매우 우수하며 지속사용시 피부의 탄력을 증대시켜 활기차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게 합니다. 여기에 천연월굴나무에서 추출되는 미백성분인 알부틴을 함유시켜 피부를 맑고 희게 유지시키는 기능성 효과를 부여함으로써 피부 항상성에 대한 최선의 만족을 느끼게 합니다.

옛부터 연꽃향은 정신을 맑게 하고 안절무절 해준다하여 정진(精進)하시는 분들이 늘 가까이 하었다고 합니다.

**최고급 천연 연꽃 미백기능성화장품 蓮**

- 식품의약품안전청 미백 기능성 허가
- 날듯 말듯한 은은한 연꽃향
- 천연 식물성성분으로 모든 피부타입에 적합
- 피부에 보습과 영양을 주어 생기있는 피부유지

**순식물성 천연연꽃 미인비누**

- 연꽃에센스오일이 첨가된 순식물성 천연 연꽃 비누
- 연꽃향이 아주 좋으며 뛰어난 보습효과가 있음
- 세안시 당기는 감이 없고 피부보호막이 형성하여 부드럽고 촉촉하게 해주어 생기있는 피부를 느끼게 해줌
- 알레르기나 민감한 피부에도 좋음

※스님, 불자님, 공부하는 학생, 진한 향을 싫어하시는 분 등을 위해 만든 최고급 천연 연꽃미백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문의전화 (02)420-4460 (농협) 128-02-202744 김희경  
제조원 : (주)스킨케어 판매원 : 연꽃미인



- 구성** 천연 연꽃 미백기능성화장품 蓮 1개 + 순식물성 천연연꽃 미인비누 2개
- 종류** 여성용, 남성용
- 가격** 78,000 → 48,000원 (출시기념)